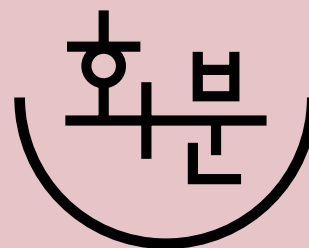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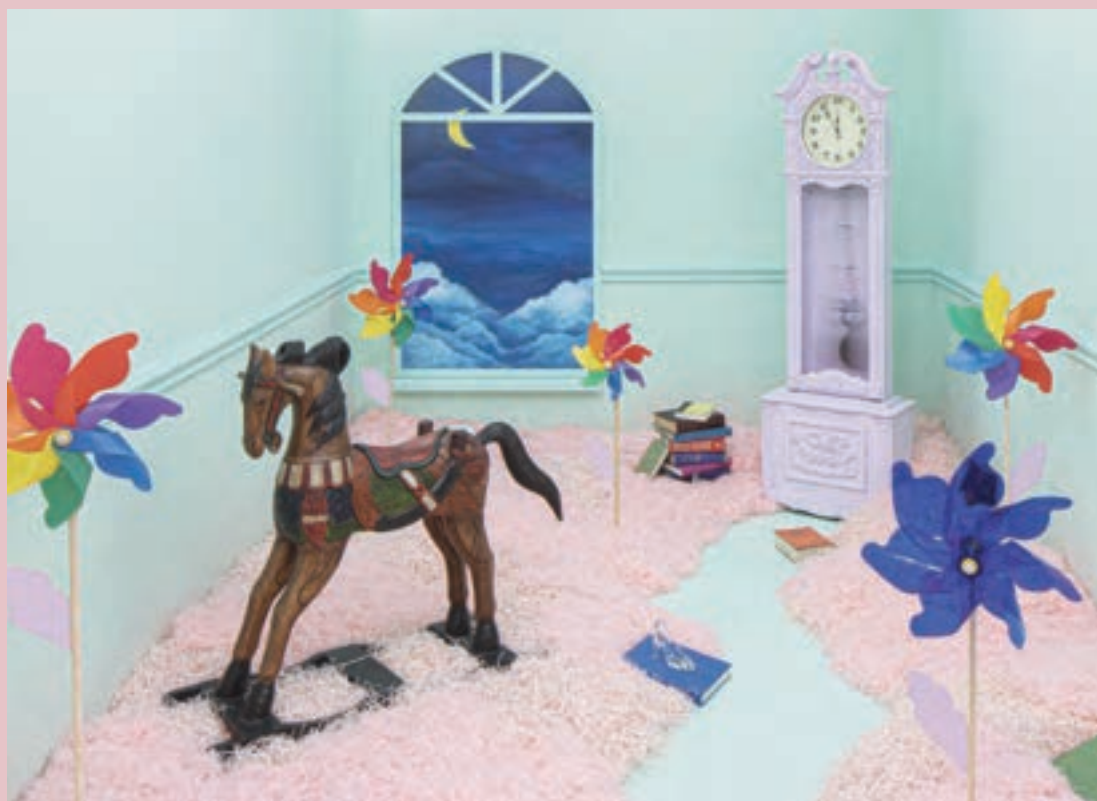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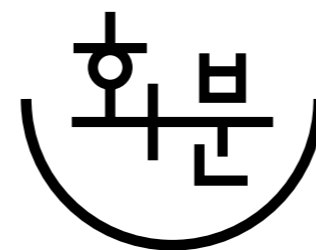
2022 SPRING
VOL.54
ART + BLOSSOM



HCF MAGAZINE



ART + BLOSSOM



ART + BLOSSOM

전시 <감상의 발견: 느리게, 조용히, 신나게>는 새 생명이 움트는 봄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전시입니다.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사진 등 3명의 작가가 선보이는 이채로운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함께 하는 즐거움과 발견의 기쁨을 전합니다. 봄꽃처럼 화사한 작품을 보며 나만의 발견을 하는 시간, 그 신나는 감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표지 사진. 특별사진관

CONTENTS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봄이 곧 시이자 그림이지요



The 담다 예술을 담다

10 FOCUS

지역사회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지원센터의 첫 걸음

14 INTERVIEW

춤추는 기호들의 세계
<구두점의 나라에서> 안무가 정영두

20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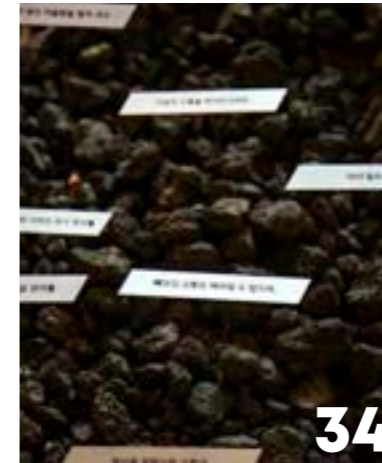
현대 공연의 트렌드,
해체와 참여

24 TALK

모네, 오늘의 소중함을 일깨운
수련의 빛

28 LIVE

아이에게 배우는 일상의 성스러움
조현익 작가의 방



The 가다 공간을 가다

34 WALK

화성의 기억을 걷다
화성 3·1운동 만세길

38 FEATURE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자세
전시 문화 데이트

42 TICKET

취향 저격, 흥미로운 시리즈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다

46 SKETCH

화성을 만드는 방법
우리나라 토종 고래, 상괭이를 아세요?

48 CHECK

커피 한 잔, 그림 한 점
그림 그리는 카페



The 하다 함께 하다

52 HELLO

우리가 몰랐던 무대 뒤 숨은 조력자
하우스 부매니저 이곡지·헤드어써 정은서

56 LIST

병점도서관 북큐레이션
문학상 수상 도서

60 PEOPLE

화성인의 대답

64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70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71 PLACE

배포처

VOL.54
2022 SPRING

ART
+
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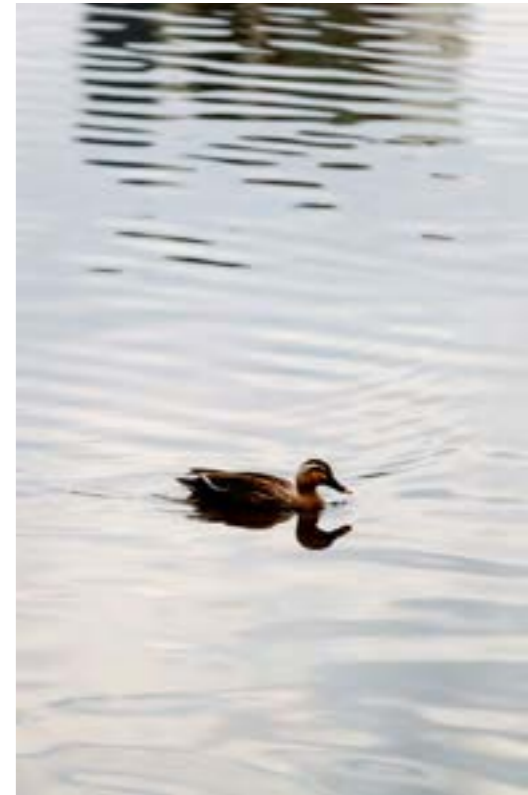


화성의 한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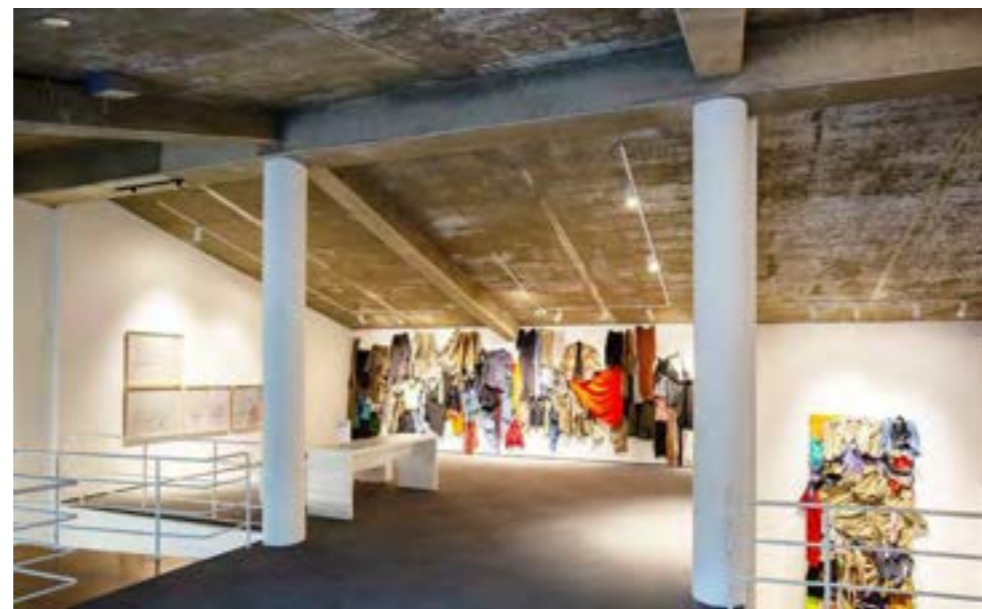
봄이 곧 시이자 그림이지요

구름같은 수양버들과 셋노란 개나리, 물장구를 치며 등실등실 앞으로 나아가는 오리의 날개짓. 동탄호수공원의 오후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 알록달록 무지개색 컨테이너 브릿지 사이론 사탕보다 달콤한 연인들의 웃음 소리가 번져갑니다. 바람과 햇살, 꽃과 나무가 곧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계절, 나긋한 봄의 전령이 화성의 시간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나무 선반을 장식한 봄꽃의 행렬, 테이블 위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고양이와 하늘 가득 두 팔을 뻗은 생강나무. 마을 어귀며 숲속 카페, 도로변과 아파트 단지에도 사랑스러운 봄이 한가득입니다.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 비밀의 정원처럼 자리한 어머니미술관에선 <되살림의 나눔> 리사이클링 옷 설치전이 한창입니다. 한 벌 두 벌의 헌옷이 모여 만든 한 폭의 그림, 한 점의 조각이 그 어떤 비싼 재료로 만든 작품보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기부를 받아 만든 이 선한 작품을 원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니, 훈훈한 정이 깃든 생활의 공감, 자원의 순환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 술 을 담 다

The 맘다

FOCUS

지역사회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지원센터의 첫 걸음

INTERVIEW

춤추는 기호들의 세계
〈구두점의 나라에서〉 안무가 정영두

COLUMN

현대 공연의 트렌드, 해체와 참여

TALK

모네, 오늘의 소중함을 일깨운 수련의 빛

LIVE

아이에게 배우는 일상의 성스러움
조현익 작가의 방



지역사회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지원센터의 첫 걸음

화성시문화재단은 국내 문화·예술계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역 예술인의 성장과 안정적인 예술 지원을 위해 예술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화성시에 특화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구조를 마련하고, 관내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신설된 예술지원센터는 지난 3월 30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글 윤나라(예술인지원팀) 사진 차유나(경영지원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위한 예술지원센터 설립

2021년 4월,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화성시 예술지원센터의 설립이 처음 논의되었다. 이는 예술인들을 위한 권리보호 확대와 문화·예술 성장에 따른 움직임에 발맞춘 노력으로 화성시 예술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통합지원관리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기반 마련 필요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후 6월, 예술인 간담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네트워킹과 실무교육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술 지원의 방향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정기간담회 2회, 예술인 대상 실무교육 3회, 특강 2회, 연구포럼 2회를 진행하며 예술인을 위한 화성형 예술지원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긴급지원이 논의되며 예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화성시 예술지원센터는 지역예술인의 성장과 정착을 돕고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2021년 10월 설립되었다. 화성시 예술지원센터는 예술인지원팀, 예술창작지원팀, 예술교육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그간 체계적인 예술지원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 30일 반석아트홀에서는 '화성시 예술지원센터 출범식' <시작, 그 움직임>이 열렸다. 예술지원센터 출범식은 지역예술인 및 시민참여형 기념식으로 참여 예술인 및 단체를 전부 관내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예술장르 및 예술인의 참여로 융복합 공연예술 기념식을 선보였다. 출범식의 사전 전시로 양영신 작가는 춤추는 소녀의 움직임을 담은 미디어아트 'Dancing girl in hwaseong'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동탄북합문화센터 외벽에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해 눈길을 끌었다. 출범식에는 관내 다양한 예술인과 화성시 주요인사들이 참여해 센터의 시작을 축하했고 현대무용가 헤라(김성원), 화성피아노소사이어티,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 유스클럽이 공연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쳤다.



예술지원센터의 다양한 예술 지원, 교육사업

예술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창작 지원, 예술인 자립 지원, 예술인 교육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선보이고자 한다.

화성 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 **예술창작지원팀**

화성시의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술 융복합, 문학 등 모든 장르의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예술의 질 제고 및 지역 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화성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 프로젝트의 지원 형태는 예술창작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창작 기획 지원', 새로운 예술의 창작과 창작된 작품의 초연 등을 지원하는 '창작활동 지원', 기존의 예술작품에 새로운 변화를 가미하여 관객 앞에서 재연하는 '예술활동 지원(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의 세 단계로 나뉜

다.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화성시 곳곳에서 창작되고, 전시·공연으로 시민에게 선보여진다. 화성 예술가 활동 지원에 선정된 사업은 전문가위원회와 시민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피드백을 받으며 더 나은 화성시 지역예술로 나아가기 위한 환류를 도모하게 된다.

예술인학교 TA사업 예술인지원팀

지역 예술인의 역량개발 및 교육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성장발판 조성 및 지속적이고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향후 시민에게도 돌아가는 예술 생태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교육가 연구과제인 연구 TA는 화성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회의 실습 및 운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화·예술 교육사업 예술교육지원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예술교육지원팀은 기존 재단에서 운영했던 강연자 중심의 아카데미 사업을 종료하고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전환을 위해 예술인 대상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가와 예술 교육자, 시민이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참여자(창작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2022년 2~3월에 공모를 진행, 5월부터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미래의 핵심 역량인 창의·감성 역량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 지원한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전문예술을 가깝고 깊이 있게 탐구하며 시민과 예술가가 직접 소통하고 함께 창작하는 예술캠프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화성시 서남부 지역 거주자와 문화 복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의 전문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진예술가 자립 지원 사업 예술인지원팀

신진예술가 자립 지원 사업은 화성시 관내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속 및 자립과 성장을 위해 청년·신진예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예술인 발굴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운영된다.

예술 창작 공간 활성화 지원, 대관료 지원 예술창작지원팀

지역 예술인의 관내 작업실 및 연습 공간의 임차료 지원과 관내 공연장·전시장의 대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을 지원한다. 예술 창작 공간 활성화 지원은 2022년 신규 지원사업으로 관내 연습 공간의 부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부담 증가 등 예술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경기도 매칭사업인 ‘대관료 지원’을 통해 예술작품의 활동 및 발표 공간(관내 공연장·전시장)의 대관료를 지원,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원받은 예술인들은 관내 공연장과 전시장을 거점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예술인 아카이빙 DB 구축 사업 예술인지원팀

예술인 DB 구축의 일환으로 예술인 전수조사, 예술인 영상 아카이빙, 예술인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예술인·단체 DB 등록은 상시·수시로 진행하여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성시 예술인 전용 플랫폼은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만드는 힘은 그곳 화성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예술지원센터의 미래**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운영 사업 예술창작지원팀

2021년 5월 개관한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은 2개의 연습 공간 대관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정기적인 공연예술 연습과 창작을 위한 거점을 제공한다. 매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운영되는 연습 공간은 대관 공간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화성시문화재단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예술 기반의 지역 예술인을 걸집하고 성장케 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의 대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ko.or.kr/pspa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걸맞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시기별, 단계별 사업을 계획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 시행이 본격화되면 향후 지역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지원센터는 계속해서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소식을 화성시 예술인과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춤추는 기호들의 세계 〈구두점의 나라에서〉

안무가 정영두



마침표와 따옴표가 만나 태양이 되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모여 나무가 된다. 쉼표와 대시가 돌격을 하고, 세미콜론은 팔호의 방에 갇힌다. 이 무슨 알쏭달쏭한 말일까? 아트북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책에서 튀어나온 구두점들이 걷고 구르며 관절을 움직여 멈춤과 비김, 숨김과 놀람을 표현한다. 5월 5일 화성아트홀에서 선보일 〈구두점의 나라에서〉.

정지된 기호들에 표정과 움직임을 불어넣는 정영두 안무가를 만났다.

글 최현주 사진 황필주(studio79)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공연 전문가들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매진돼서 놀랄 정도였어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피아노 2대의 라이브 연주가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조화를 잘 이뤘다” “책에 나오는 구두점들이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져 마치 살아있는 구두점의 나라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상적인 무용과 다르지만 뭔가 설명을 하려하지 않고 형태나 움직임 자체만으로 시각적인 쾌감과 청각적인 쾌감을 느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억압적인 일상만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공연을 충분히 감각적으로 즐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해 예술의전당에서 처음 선보인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무용’이란 장르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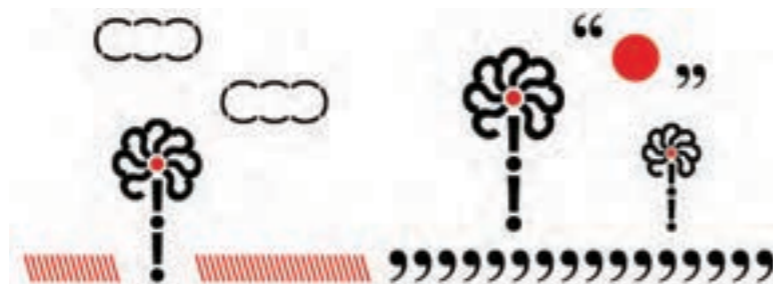
사실 여러 고민들이 있었어요. 작품 성격상 어린이와 청소년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타치의 무용 작품이 드문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어린이·청소년이란 타이틀을 붙이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어린이·청소년이란 타이틀을 붙이면 ‘저건 어린 친구들이나 보는 건가’라는 선입견 내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지난해 〈구두점의 나라에서〉를 무대에 올리고 나선 대상을 특정 연령층으로 한정 짓지 말자고 했죠. 전 연령층, 특히나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작품이니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그냥 ‘무용 작품’으로 지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독일 작가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이 쓰고 라트나 라마탄이 그린 아트북 《구두점의 나라에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언제인가요?

아트북 《구두점의 나라에서》를 처음 본 건 2016년 쯤이었습니다.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책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생

정영두





각을 했어요. 음악하는 작가들과 춤추는 작가들이 의기투합했고, 당시 보림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이란 카페에서 처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구두점의 나라에서>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거예요. 7년 전에 이미 한번 공연을 한 적도 있고, 마음속에 여전히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아 있어서 기쁘게 작업했습니다.

아트북 <구두점의 나라에서>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책이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론서처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조형적으로 그냥 재미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조금씩 다른 배

리에이션들이 있고, 모든 페이지들이 조형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그냥 어느 페이지든 펴서 테이블에 올려만 놓아도 시각적으로 완벽한 것이지요. <구두점의 나라에서>에 그림책이 아닌 아트북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림출판사에서 내는 컬렉션 시리즈 중 하나란 것만 봐도 아주 특별하죠.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한 권 한 권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에디션도 있습니다. 시가 가진 줄거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책을 무용작품으로 만들 때 시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했어요. 이 선들은 왜 여기에 연결했을까, 이 점과 저 선들 사이엔 왜 공간이 있을까, 이 높이에 이 구두점들을 배치하다니, 이 정도였으면 정말 이상했을텐데 하면서 그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구성을 즐겼습니다.

책에서 받은 바로 그러한 느낌을 무대로 옮겨온 것이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이군요. 하지만 몸을 통해 나온 구두점들의 모습은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 말이나 글은 그 자체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연에서 배우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 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라고 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 장면을 문장화된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그와 달리 해의 밝기나 나뭇잎의 펼쳐임을 말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면 보는 이들은 각자 개별화된 감각과 텍스처로 그 순간을 기억하겠죠. 추상예술인 무용에 어떤 의미나 이해라는 조건을 들이대면 오히려 영원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순간 멈춰 서서 차창 밖을 보는 건 그 장면이 색감이나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인데,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사물을 완벽히 이해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 바로 무용입니다. ‘손을 왜 뻗었어?’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묻는 대신, 몸이 만드는 운동성과 조형의 아름다움을 그 순간 느끼고 간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트북을 무용으로 옮기는 작업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나요?

책을 무용작품으로 옮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이었어요. 무곡의 형태로 피아노를 떠올렸고, 클래식, 국악,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오신 신동일 작곡가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아노 2대가 연주하는 총 17곡의 완성도 높은 음악이 마치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느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게 됐죠. 다음으로 블랙박스 형태의 극장에서 무용수들이 1시간 동안 춤출 수 있는 무대와 의상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무용수들이 살 수 있는 음악과 무대를 먼저 결정했죠. 그런데 사실 이 건 국립현대무용단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감사하게도 곡이 빨리 나와서 석달 동안 매일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을 몸에 익혔어요. 지난 해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들어가기 전엔 저 혼자 리서치를 해서 조안무하고 무용수 한 분 모시고 2주간 2~3작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2, 3일에 한 작품씩 안무를 끝냈고, 일주일엔 4번 모여 최소 2곡 이상을 연습했어요. 저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무용수들도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구두점의 나라에서>의 안무를 담당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책은 정지되어 있지만 무용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음악은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로운 무용수의 몸을 음악이라는 시간 위

에 얹지 않으면 그냥 다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작곡을 할 필요도 없이 즉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구조 안에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마치 작곡을 하듯 섬세하게 얹어야 해요. 동시에 아트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유쾌함을 무용수들이 각자의 움직임대로 순간순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작을 제가 다 만들어주지 않고 콘셉트를 주고 무용수들이 직접 만들어오게 한 건 그 때문이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서 움직임을 완성해가는 공동창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두점의 나라에서> ©국립현대무용단_Aiden Hwang



‘책에서 나온 무용’이란 점이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를 만드는데 있어 부담되진 않으셨나요?

책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완성도가 높은데다, 유명하기도 해서 자칫 움직임이 재미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어요. 무용이 책과 너무 달라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똑같아도 이상할거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무용은 무용, 책은 책인데 책과 똑같이 할거면 굳이 무용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지문, 또는 무늬는 남기 돼 스토리에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책으로 읽었을 때와는 다른 무용의 장르적 즐거움을 주자고 결심했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이런 재미들, 그리고 다리를 저렇게 두 개 뺀 으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네, 그런 걸 즐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힘들기도 했고, 또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정영두 안무가님이 생각하시는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구두점의 나라에서>는 3개의 장르를 관객의 느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맛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나는 춤을 떠나 그냥 눈 감고 피아노 연주만 들으셔도 좋아요. 굉장히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사실 2대의 피아노가 연주하는 신동일 작곡가님의 곡을 17곡이나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일니까요. 라이브 연주의 떨리는 진동을 느낄 수 있고, 또 중간중간 끊어지는 짧은 곡들을 즐기는 맛도 아주 좋죠. 또 하나는 눈으로만 즐기셔도 좋아요. 하나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장 가까운 장면이 다양한 구성으로 펼쳐져서 시각적으로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대에 꾸러진 전시만 보셔도 좋습니다. 저 뒤에 피아노가 있고 무용수가 등장하고 거기에 또 조명들이 비추면 마치 살아있는 전시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어느 쪽으로든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오는 어린이날 무용극 <구두점의 나라에서>가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의 무대에 오릅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분>의 독자 여러분에게 관전 포인트, 또는 재미있게 즐기는 팁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교훈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에서 년 뭘 느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억압이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더 넓은 해석력을 갖고 받아들 이거든요. 메시지라는 억압에서 벗어나야지만 사실은 진짜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밥상 차리는 법, 나만의 책상 정리하는 법이 있듯이 누구나 본인만의 구성법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기거든요. 그것을 즐길 수 있으면 그건 또 한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각을 지닌 겁니다. 그런걸 아이들 스스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미리 답을 내리거나 문자화해서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를 통해 관객들이 무엇을 느끼셨으면 하는지요?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풍요로워졌구나, 그리고 내 시선과 나의 청각, 피부의 감각들이 새롭게 경험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난 것들이 막 떠다니네 움직이네 하는, 저는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가감없이 어떤 필터도 끼우지 않고 보신다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에서 공연을 하시게 된 소감이나 화성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화성에서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인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지역의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다면 안무가로서 감사한 일이지요. 지난해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 첫 공연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연만큼 무용수 분들과 연주자 분들이 훨씬 더 즐기면서 하셨어요.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댄스 ON STAGE 1 :
국립현대무용단 <구두점의 나라에서>
장소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기간 2022년 5월 5일(목)
시간 13시, 17시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정영두
무용가이자 안무가다. <내려오지 않기, 2004>로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불편한 하나, 2006> <기도, 2007> <제7의 인간, 2010> <달지 않는, 2020>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실존하는 몸과 움직임에 대해 탐구해왔다. 최근엔 무용작품 <구두점의 나라에서>와 창작 <리어왕>을 선보였다.

현대 공연의 트렌드, 해체와 참여



©National Theatre (Draw Me Close)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연예술의 경쟁력이었다.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공연 애호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연장을 찾았고, 비대면 사회가 오히려 라이브 감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다. 팬데믹 사회가 커다란 블랙홀로 작용했던 공연계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다시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공연계 역시 서서히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해왔던 것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글 박병성(공연 칼럼니스트)

21세기 가장 두드러진 공연 트렌드, 해체

현대 공연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해체와 혼종'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공연들을 보면 기존의 정통적인 특정 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다. 탄츠 씨어터를 표방한 피나 바우쉬의 춤은 무용에 연극적인 요소를 강하게 접목했고, 국립창극단의 최근 작업들 역시 창극의 고유성에 연극적인 면을 많이 가미했다.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는 종종 뮤지컬로도 분류되는데,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를 남성 백조의 이야기로 각색한 작품이다. 출연 배우 누구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음악 역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각색했다. 이것을 뮤지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는 영국의 올리비에상 뮤지컬 부문 후보에 올랐다. 최근 팬데믹 사회에서는 영상과 공연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이 실험되기도 했다. 영국 내셔널 시어터와 국립영화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드로우 미 클로즈(Draw Me Close)>는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와 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National Theatre (Draw Me Close)

보통 애니메이션과 다른 점이라면 이미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관객은 VR 헤드셋을 끼고 관람을 하는데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 아들이 되어 작품에 참여한다. 이 작품의 결과물은 VR 영상이지만, 관객과 라이브로 만난다는 점에서 공연의 특성을 담고 있다. <드로우 미 클로즈>를 기존의 영화, 또는 연극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가지 요소가 혼종(hybrid)된 그저 <드로우 미 클로즈>인 것이다. 최근 공연들을 보면 연극에 영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이 작품이 춤인지, 연극인지, 게임인지 알기 힘든 작품이 많다. 앞으로 다양한 공연 양식이 혼종하는 작품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미 특정 장르로 규정지으려는 생각이 존스러워졌다.

관객의 적극적 참여, 이머시브 시어터

코로나19 이전까지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re)는 공연계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였다. 이전의 관객이 제4의 벽 밖에서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하는 소극적 참여자였다면, 이머시브 시어터의 관객은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 된다. 이미 이러한 공연 양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트렌드로 굳어진 것은 <맥베스>의 이야기로 만든 <슬립 노 모어 (Sleep No More)>의 역할이 크다.

영국에서 선보인 이 작품은 뉴욕의 5층짜리 폐건물 전체를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상업화에도 성공했다. 관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자 원하는 층에 내려 각 방에서 벌어지는 <맥베스>의 장면들을 지켜보게 된다. 운이 좋은 관객이라면 배우 손에 이끌려 같이 차를 마시거나, 인물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한다. <슬립 노 모어>에서 관객은 자신이 어느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경험한 공연이 달라진다. 관객의 선택에 의해 감상한 공연 내용이 달라진다는 면에서 관객은 작가이자, 때로는 극에 참여하는 배우가 된다. 양식적으로는 정통적인 공연장의 해체이면서 관객과 작가, 배우의 개념을 해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체가 관객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관객들을 개초비의 파티에 초대하는 이머시브 극 <위대한 개초비>도 대표적인 이머시브 연극이다. 국내에서는 밀남인형 전시관인 그레뱅뮤지엄을 개초비의 맨션으로 꾸미고 공연했다. 관객들은 개초비 맨션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된 손님이 되어 등장인물과 눈을 맞추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공연을 즐기게 된다. 메인 홀에서는 함께 춤을 배우기도 하고 파티를 즐기지만 좀 더 은밀한 이야기는 각 캐릭터를 따라간 방에서 이루어진다. 개초비를 따라간 방에서는 데이지와의 은밀한 밀회를 엿보고, 머틀을 따라간 방에서는 친구인 닉에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는 걸 엿듣게 된다. 이머시브 연극 <위대한 개초비>는 피츠제럴드의 유명한 소설 속으로 관객을 안내해서 소설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위대한 개초비> 박정복, 이서영

©국립극단 <햄릿>

성(性)의 벽을 넘어, 젠더프리

이처럼 적극적인 이머시브 극이 아니더라도, 최근엔 이머시브적 요소를 넣은 연극과 뮤지컬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내셔널시어터의 <줄리어스 시저>는 관객들을 시저와 브루투스가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세계로 안내한다. 관객들은 시민이 되어서 유력한 정치인인 시저와 브루투스가 자신의 신념을 연설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게 된다. 샘 맨데스가 연출한 뮤지컬 <카바레> 리바이벌 공연은 극장을 작품 속 배경인 1929년 독일의 킷캣클럽으로 만들어 마치 나치 치하의 클럽에서 쇼를 구경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외에도 작은 규모의 실험적인 공연들은 아예 공연장을 벗어나 스토리와 관련된 장소에서 공연을 하면서 작품의 느낌을 더 친밀하게 전달한다. 인육을 파는 파이집 이야기인 뮤지컬 <스위니 토드>를 오래된 파이집에서 공연하고 관객들에게 애플파이를 나누어주는 식이다. 이와 유사한 콘셉트의 공연이 소극장은 물론 대극장의 상업 공연에서도 종종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2016년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이후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공연계에서는 젠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역할의 성을 바꾸는 젠더 프리(gender free), 젠더 밴딩(gender bending) 캐스팅이 인기를 끌었다. 2016년 독일에선 네로파(Neutral Roles Parity) 프로그램을 통해 대본을 분석해 보니 반드시 남성일 필요가 없는 역할조차도 남성이 캐스팅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백 년 동안 남성 중심 사회가 유지되다 보니 연극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다. 그런 불만을 해소하고자 기존 남성 캐릭터를 여성 배우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8년 런던 글로브극장의 예술감독인 미셸 테리는 <햄릿>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바꾸어 공연했다. 국립극단의 <햄릿>에서도 이봉련이 햄릿 역을 맡아 성별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었다. 젠더 프리는 공연계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부족한 환경을 보완하는 동시에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연극 <비평가>는 비평가와 작가가 작품에 대해 토론을 하며 작가와 비평가의 역할에 대해 날선 갈등을 보이는 작품이다. 원래는 남자 배우가 출연했으나 재연에선 여자 배우로 바뀌었다. 대사는 모두 그대로 두고 배우의 성별만 바꾸었는데 작품에 대한 갈등이 좀더 입체적으로 드러났다.

뮤지컬 <헤드윅>의 미국 투어 공연에선 헤드윅 역을 여자 배우 레나 홀(이초학을 연기하기도 했던)이 맡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심화시켰다. 헤드윅은 잘못된 성전환수술로 1인치의 살덩이가 남겨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물이다. 성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임에도 그동안 남자 배우가 출연했는데, 이를 여성이 맡으면서 이분법적 세상에 가운데 손가락을 쳐드는 작품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

젠더 프리는 기존 작품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더욱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이나마 여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하고, 뮤지컬 전문지 <더뮤지컬>과 <월간 공연전산망>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한국일보 객원기자로 '박병성의 공연한 오후'로 공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연재 중이며, 저서로는 <뮤지컬 탐독>이 있다.

모네, 오늘의 소중함을 일깨운 수련의 빛

‘빛은 곧 색채’라고 말한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에 정착해 정원을 가꾸며 수련 연작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아름답고 한적하지만 그다지 특별한 매력을 찾기는 어려웠던 지베르니를 최고의 여행지로 만들어준 모네의 비결은 ‘그저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지베르니를 떠나는 것은 마치 심장을 두고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한 모네. 그는 예술과 일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아티스트의 이상을 실현한 작가다.

글 정여울 사진 이승원

모네의 정원이 있는 지베르니

그때는 몰랐다. 시골여행의 낭만을. 파리, 런던, 뉴욕 등 커다랗고 유명한 도시만을 찾아다닐 때는 지베르니처럼 작은 마을을 여행하는 기쁨을 몰랐던 것이다. 내게 작은 고장의 기적같은 아름다움을 알려 준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모네의 안식처 지베르니였다. 고작 인구 300 명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마을을 매년 관광객 3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 비결, 그것은 바로 ‘모네가 이 마을에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지베르니에 여전히 건재하는 모네의 정원야말로 전세계의 모네 팬들이 언젠가는 꼭 가고 싶어하는 예술의 성지가 되었다. 지베르니에 모네가 살지 않았더라면 이 마을은 계속 평범한 시골마을이었을 것이다. 아름답고 한적하지만 그다지 특별한 매력을 찾기는 어려웠던 지베르니를 최고의 여행지로 만들어준 모네의 비결은 ‘그저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평생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헤매며 온갖 도시와 바다, 숲과 들판을 헤매던 모네는 지베르니에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젊었을 때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화가였던 모네는 가정과 일 무엇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따스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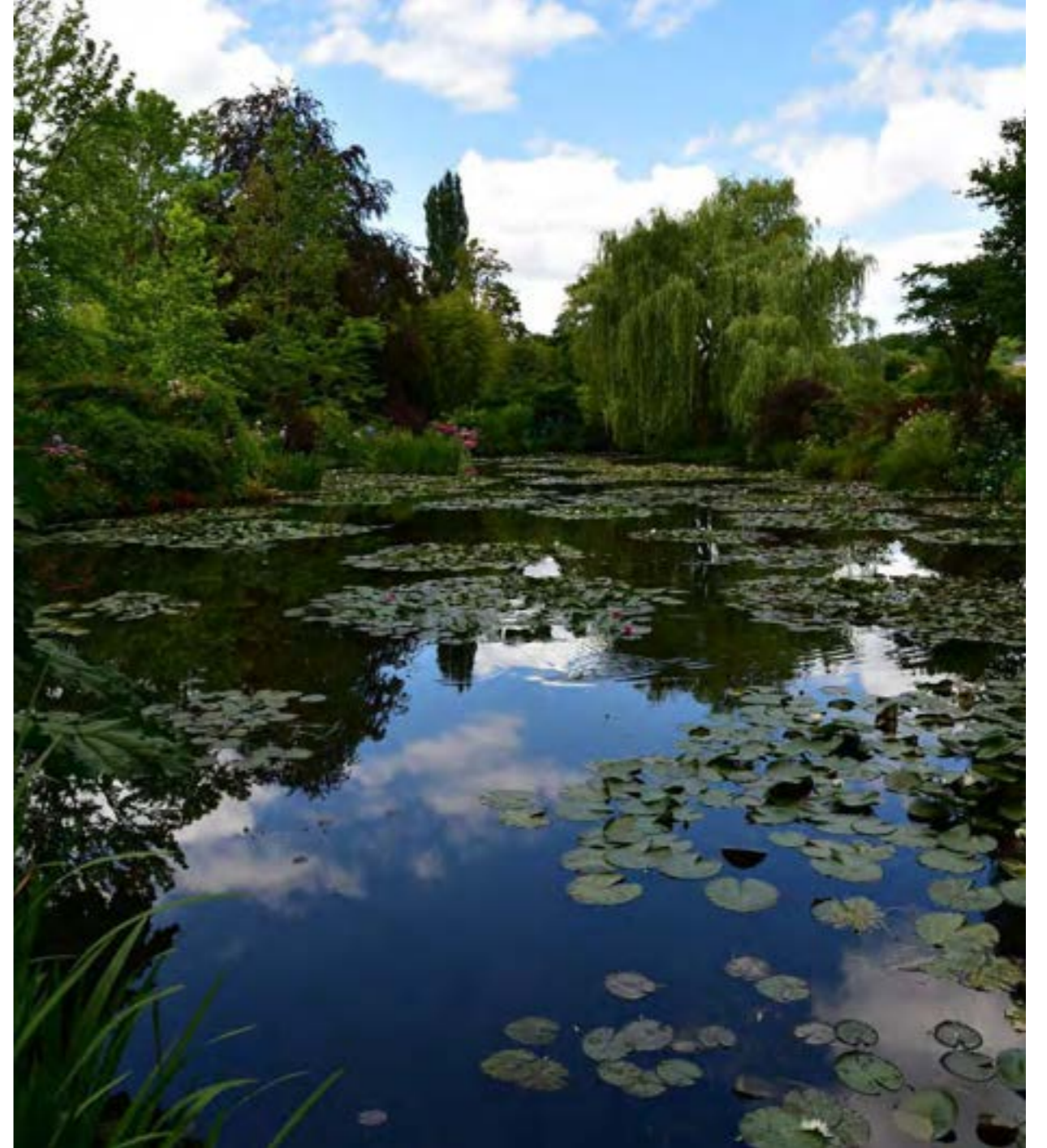
하지만 스케치 여행을 하다 보면 가족과 헤어져있을 수밖에 없었고, 온갖 무거운 화구와 짐을 끌고 머나먼 길을 다니는 불안한 삶을 끝내고 싶었다. 지베르니는 모네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 늘 있으

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물론 처음부터 지베르니가 모범답안처럼 완성되어 존재하던 것은 아니었다.

365일 꽃이 지지 않는 살아있는 유토피아

모네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예술가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분투했다. 모네는 평범한 시골마을 지베르니의 낡은 집을 사서 그곳을 자신만의 독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천국으로 만들어냈다. 식구들 모두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커다란 이층집을 개조했고, 화실과 부엌을 특히 널따랗게 만들어 가정의 화목과 예술가로서의 노동을 모두 중시하는 이상적인 인테리어를 실험했다.

지베르니 모네 하우스의 핵심은 모네의 정원이었다. ‘물의 정원’과 ‘꽃의 정원’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거대한 공간은 모네의 숙원사업, 즉 365일 꽃이 지지 않는 살아있는 유토피아였다. 모네의 영원한 테마가 된 수련 연작도 바로 이 지베르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놀라운 것은 수련을 모네가 직접 심고 가꾸었다는 점이다. 부지가 워낙 넓어 무려 6명의 정원사를 고용했지만, 모네 또한 열심히 정원을 함께 가꾸었다. 모네는 ‘내가 잘하는 일은 오직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 밖에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화가로서의 삶과 정원가로서의 삶을 사랑했다. 다른 일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



모네의 영원한 안식처 지베르니의 수련

평범한 일상과 자연야말로 위대한 예술의 화두

이제 모네는 아름다운 풍경을 찾기 위해 머나먼 곳을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에 그가 꿈꾸는 모든 것을 완벽히 재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집과 정원을 일종의 거대한 무대 세트로 삼아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과 같았다. 그 무대 위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가 매일 애지중지 키우는 꽃과 나무들이 소담스러운 일상의 축제를 벌였다. 모네의 그림을 보는 일이 즐거운 것은 그가 일상의 아주 자잘한 기쁨을 거대

한 기적처럼 눈부시게 그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원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는 아내의 모습, 꽃의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마치 필생의 소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꽃을 피워내는 수련의 장관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과 자연야말로 위대한 예술의 화두임을 상기시켜준다. 모네가 묘사하는 것은 단지 일상의 평화로움이 아니라 일상의 자잘한 디테일 속에 숨은 눈부신 생의 아름다움처럼 보인다. 그 속에서 양산을 쓴 아내는 신화 속 여신만큼이나 찬란하고 신성하며, 뛰노는 아이들은 신화 속 큐피드 못



모네가 살았던 지베르니의 방

지 않게 사랑스럽다. 일상의 작은 디테일에서 찰나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모네는 생을 사랑하는 따사로
운 눈길과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한 화가의 붓질로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모네에게 수련은 디테일의 보물창고

모네의 정원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방의 정원이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기획에 따라 한껏 가공한 인
공정원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꽃이 피게 하기 위해 모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1899년 이
후부터는 특히 물의 정원에 있는 수련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저 관상용으로 심었던
수련이 말년에는 모네에게 필생의 화두가 된다. 모네는 점점 시력이 나빠졌는데 하루종일 따가운 태양광선
을 맞으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 습관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작업 습관이 눈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았지만, 모네는 한 번 붙든 예술의 화두를 결코 포기할 수 없
었다. 하루종일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꾸는 수련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마침내 '오랑주리미술
관' 등에 기증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심혈을 기울인 자서전 같은 작업이었다. 수련이
야말로 그동안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디테일의 보물창고'였다. 모네를 사랑
하는 사람들은 모네의 수련 연작이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오랑주리미술관을 '인상주의의 시스티
나성당'이라고 부를 정도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시스티나 성당의 영원한 주인공이듯이 모네의 수
련 연작은 오랑주리미술관을 지켜주며 전 세계인을 맞이하는 모네의 뜨거운 분신이다.

자연은 영원한 영감의 원천

모네가 자연으로부터 얻은 풍요로움이야말로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색채는 온종일 모네를 사로잡았
다. 색채는 그의 강박이며 기쁨이자 그를 끝없이 고문하는 고통이기도 했다. 그는 더 정확히 자신의 눈에 보
이는 대로 색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백내장 증상이 심각해져 더 이상
그림을 예전처럼 완벽하게 그릴 수 없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붓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러
야외로 나간다면 당신의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잊으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나무든 집이든 들판이든 무엇
이든, 기존의 관념 따위는 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려보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홍색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란색 줄무늬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네의 방식이었다. 꽃이라는 관념과 바다라는 관념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눈앞에서 반짝이는 바로 이 순
간의 색채와 형태를 잡아내는 것이 모네의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지베르니를 떠나는 건 심장을 두고 떠나는 것

모네는 수련을 통해 명실상부 최고의 화가로 발돋움했다. 그의 화풍을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해 전 세계에
서 화가들이 지베르니로 몰려왔고, 모네는 특별히 제자를 받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마을에 모여 살며 일
종의 모네 학파를 만들었다. 그중에는 모네의 딸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지베르니에 정착한 뒤 모네는 '성격이 온화해졌다'는 칭찬을 듣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과도한 노동
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았던 모네는 스케치 여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파리의 유명한 화상들에게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껴왔다.

하지만 지베르니에 정착한 뒤 수련 연작이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모네는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났고,
세계적인 거장으로 발돋움했으며 살아있을 때 화려한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화가가 되었다. 고해도 고강
도 마네도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내 작품은 대중은 물론 평론가나 화가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립
감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해, 모네는 마침내 대중과 평단 모두에서 환영받았고,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 미술시장까지 석권할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 그 모든 행복의 베이스캠프는 바로 지베르니의 정원이었
다. 모네는 전시회 때문에 잠시 지베르니를 떠날 때마다 아쉬워했다고 한다. 지베르니 전체를 들고 다닐 수
는 없었으니까. 지베르니를 떠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두고 떠나는 것처럼 허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네를 통해 나는 매일 영감을 얻는다. 바로 예술과 일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아티스트
의 이상을 실현한 그의 놀라운 창조성과 불굴의 인내심이야말로 내가 영감을 얻는 '예술의 오아시스'다. 바
로 이곳 지베르니에서 실현한 것이다.

정여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온도를 찾다> <끝까지 쓰는 용기>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
을 것들> 등 30여 권의 인문·심리·여행 책을 출간했다.



모네의 그림이 있는 마르모탕모네미술관



오랑주리미술관에서 모네의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



아이에게 배우는 일상의 성스러움 조현익 작가의 방

머리를 풀어헤친 나체의 여인이 날카로운 빛에 몸을 베이고 '믿음의 도리'라 적힌 전단지 아파트 우편함을 가득 메우는가 하면, 다리와 얼굴이 붉은 콩순이가 해맑게 웃고 있다. 재료와 물성, 컬러와 분위기까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작품들. 조현익 작가는 이 모든 것이 곧 '일상의 성스러움'이라고 말한다.

글 최현주 사진 김지은(시각예술 작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시각예술인 조현익입니다. 200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온 좋게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웃음) 초기엔 빛을 잔뜩 머금거나 녹이 쓴 철의 양면적 물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이상화처럼 만들었어요. 철의 빛과 어둠의 이원적 상징성을 토대로 마치 제의적 의식을 치르는 제단처럼 보이는 설치 작업도 했죠. 그 후에는 신앙이나 종교에 관한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육아 중 포착한 소소한 대상들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교시절 인문계고에 다녔는데, 고2 때 미술선생님의 권유로 뒤늦게 미술을 공부해 순수미술 전공의 미대로 진학했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함께 조교생활을 병행했고, 졸업 후에는 친구와 구의동 반지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양평의 산속 작업실에서 홀로 4년간 지내기도 했죠. 그러다 2012년 무렵 한 국내 레지던시에서 만난 동료 작가이자 현재의 아내와 결혼해 두 아이의 육아를 하면서 작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히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네요. 그저 끊임 없이 작업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시험하는 환경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온 제 작업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가 처한 '지금'의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일상의 성스러움'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고 실연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 이런저런 일상 속 삶의 서사적 경험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겪는 일이지만, 저는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이 결코 다시 오지 않는, 어쩌면 그 순간이 삶의 전부로 여겨지는 것들을 작업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삶을 통해' 소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곧 작품의 원천이자 목적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에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이 작업의 소재이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 2021, 갤러리 진진, 서울 4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육아와 작품활동이 밀착된, 삶이 곧 작업인 날들을 살고 있어요.(웃음) 아이들이 시시각각 행동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제게 울림을 주는 소재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경부터 새로운 <성화(Neo Ic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의 종교적 이콘화의 개념이 아닌 일상 속의 작지만 특별한 소재를 성스럽게 부각시키고 기록하고자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보니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아이와 맞닥뜨렸던 순간들 중에서 인상 깊은 주제를 포착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종이 접기에 미숙한 유아가 나뭇잎의 종이 접기 행위를 통해 의미를 부여한 형상과 색채를 회화로 담은 <조형연구 시리즈>와 아이가 소꿉놀이할 때 제게 차려준 특별하고 소중한 밥상을 금빛 찬란하고 원색적인 회화와 꼴라주 작업으로 만든 <만찬 시리즈>가 있어요. 아이가 해체하고 분리한 장난감들의 수난을 담은 <순교자 시리즈>와 일상의 성스러운 풍광을 담은 <가족사진 시리즈>, 그리고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일상과 사물을 회화로 제작한 <무지개 시리즈> 등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아이들은 늘 경이로움을 보여줘요. 어른의 눈으로 볼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새롭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분위기 있는 무채색만 선호하던 제가 튀어서 싫어하던 원색을 다시 보게 된 것도 신기해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그 천재성에 감탄하게 되고, 이윽고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다보면 문득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버릴 때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소우주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별들을 바라봐주지 않고 무심코 지나친다면 너무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걸 소중한 거예요. 함께 바라보는 역할이 현재 제 작업의 모티브입니다.

당신의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고양시 벽제에 거주하다 2017년 봄 무렵에 봉담읍으로 이사왔어요. 화성에 산 지도 벌써 5년이 됐네요. 아내는 근처의 허름한 곳을 월세 작업실로 쓰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온갖 그림들과 짐을 이고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조금 무리해서 넉넉한 공간의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층고도 높고 쾌적한 작업실에 있을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고, 저를 늘 응원해주는 동료 작가이자 아내와 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 더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또 하나 더 좋은 건 화성시문화재단과의 인연이에요. 처음에는 화성시에 문화재단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지역작가들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운 좋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화성예술가활동지원(시각예술 분야) 작가에 선정돼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화성예술플랫폼>에도 참여해 제 작업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크스킨 판화 체험을 하고 제 작업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저는 절단된 장난감에만 초점을 맞췄던 <엄마 까투리 시리즈> 이콘화(Neo Icon)의 네러티브를 좀 더 확대할 생각이예요. 만화영화 속 드라마틱한 주제와 풍경을 대형 회화와 사운드가 혼합된 설치미술로 각색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아마 11월 경엔 화성시예술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자신이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감추어진 형태로 남아있는 현대의 신화나 의례에 의해 여전히 성스러운 기억을 무의식 가운데 감추고 있다'라고 한 M. 엘리야테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고 생각해요. 제도화된 종교에 공감하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에게 성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도록 자극하는 것은 예술이 부여받은 중요한 역할이죠. 좋은 예술가의 역할은 사소한 것들을 선택해 기억하게 하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 간 을 가 다

The 가다

WALK

화성의 기억을 걷다
화성 3·1운동 만세길

FEATURE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자세
전시 문화 데이트

TICKET

취향 저격, 흥미로운 시리즈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다

SKETCH

화성을 만드는 방법
우리나라 토종 고래, 상괭이를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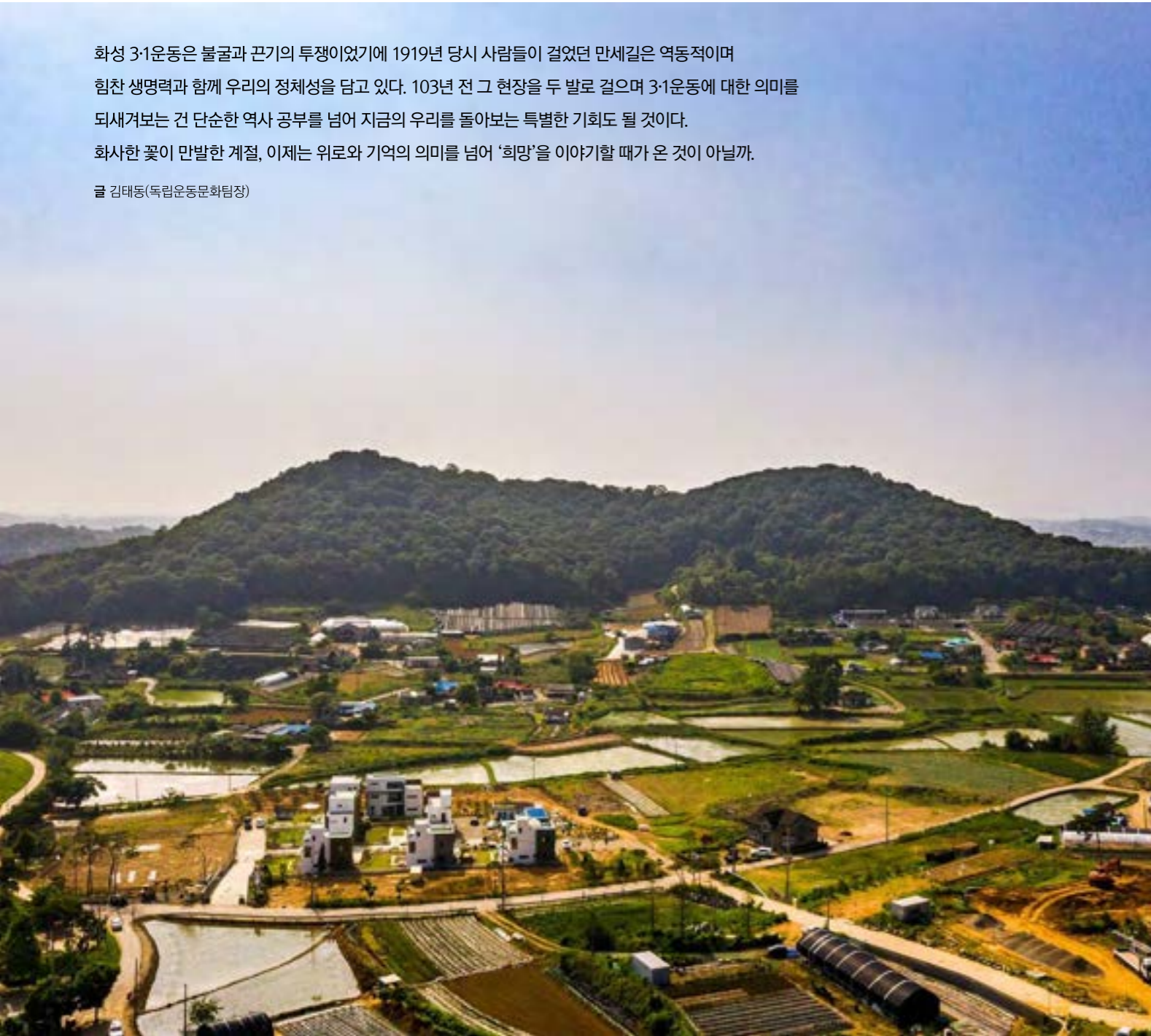
CHECK

커피 한 잔, 그림 한 점
그림 그리는 카페

화성의 기억을 걷다 화성 3·1운동 만세길

화성 3·1운동은 불굴과 끈기의 투쟁이었기에 1919년 당시 사람들이 걸었던 만세길은 역동적이며
힘찬 생명력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103년 전 그 현장을 두 발로 걸으며 3·1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단순한 역사 공부를 넘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는 특별한 기회도 될 것이다.
화사한 꽃이 만발한 계절, 이제는 위로와 기억의 의미를 넘어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글 김태동(독립운동문화탐장)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을 격렬하게 표출한 화성

경기도 화성은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전성기였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 유일하게 삼국시대 유적이 모두 출토되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 남양과 수원 일부가 포함된 넓은 영역을 갖고 있었다. 과거 한양을 제외하고 정치·행정·군사의 중심지로 찬란했던 모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쇠퇴하였다가 최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민들이 기억하는 화성은 어떤 이미지일까?

정보통신의 발달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들여다보면 화성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과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화성은 대체로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각인된 듯하다. 그러나 화성은 일제의 살인적인 수탈과 탄압에도 자주독립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격렬히 표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역사 전공자들은 판결문, 신문조서,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카드 등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공세적 3·1운동, 폭력적 3·1운동이 전개된 곳으로 주저 없이 화성을 꼽는다. 이와 더불어 일제강점에 대한 저항보다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려 한다는 의견들도 속속 표출되고 있다.

3·1운동의 현장을 두 발로 걷다

기념관 교육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도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이지만, 1919년 당시 사람들이 걸었던 만세현장을 직접 걷는 것 또한 3·1운동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알찬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성시 서남부 지역에는 우정읍과 장안면이 있다. 이곳에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통한 화성 3·1운동 만세길이 있다. 총 길이 31km인 이 길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100년 전 화성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길의 약 60% 이상을 복원하여 조성되었다. 안내소 역할을 하는 방문자센터를 기점으로 독립운동가 집터, 생가, 관공서, 햇불시위운동 장소 등 총 15개의 유heritage가 표시되어 있다. 만세길 가운데 화성 3·1운동의 정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곳을 꼽는다면 방문자센터~화수리주재소터~한각리 광장터~최진성집터에 이르는 A코스를 들 수 있다. 방문자센터는 우정읍 화수리(구)우정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첨탑 형태의 외벽에는 화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활용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고, 내부의 오래된 벽 위로 격자 형태의 구멍이 뚫린 새로운 벽을 쌓아 올려 방문객들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조형미가 돋보이는 이 건물은 '2019 아이코닉 어워드'에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마을길

이처럼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만세길은 걷는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 마을길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길 가운데 굵이굵이 자란 커다란 소나무가 나온다. 나무 아래에는 평상도 아니고 원두막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조그만 쉼터가 있다. 가끔 할머니 한 분이 나와 앉아가게하는데 이 마을로 시집온 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주신 쉼터라고 한다. 지금은 안 계시는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훈훈한 담소로 채우고 있다. 농촌 공동체의 정을 느낄 수 있는데 아마 1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쉼터를 지나 조금 더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겁많은(?) 강아지 두 마리가 지키는 목장이 나온다. 강아지 짖는 소리와 함께 목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이 또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일 것이다. 이 길의 막바지에 이르면 한각리 광장터와 최진성 집터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현재 밭으로 변한 한각리 광장은 예전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만세꾼들이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한 후 각리와 죽리를 거쳐 이동해 집결한 곳이다. 한각리 주민들은 광장으로 들어오는 만세꾼을 맞이하고 화수리 주재소에 이동하고자 대열을 정비하였다고 한다. 아마 사람들은 주재소에 가야하는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주재소를 습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모인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각리 광장 터에서 2열로 나뉘 주재소를 향해 이동하였고, 주재소를 습격할 때도 맡았던 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 분야 대상(BEST of BEST),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이다. 만세길의 출발점이자 추모의 공간인 방문자센터에는 방문객들이 정보를 얻고 쉬어갈 수도 있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유허지들 흔적 따라 걷는 3·1운동 역사 여행

방문자센터에서 약 150m 정도 내려가면 두 번째 유허지인 화수리주재소터가 나온다. 현재 화수초등학교가 있어 당시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3·1운동 기념비와 함께 이곳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설명하는 표지판이 서 있다. 주재소는 일제강점기 순사가 경찰사무를 맡아보던 곳으로 1919년 만세운동 당시 군중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곳이다. 만세를 외치던 마을 주민들은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일제히 화수경찰관주재소에 도착하여 주재소를 에워싸고 격렬한 시위를 하였다. 주재소 안에 있던 순사보 3인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나와 도망쳤으나 내부에서 동태를 살피던 일본 순사 가와바타 도요타(川端豊太郎)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며 달아났다. 가와바타가 쏜 총에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장안면 사곡리의 이경백 애국지사는 순국하였다. 총을 발포한 가와바타는 주재소 북쪽의 뒷산으로 도망갔으나 그를 뒤쫓은 군중에 의해 처단되었다.

세 번째 유허지인 최진성 집터는 화수리주재소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유허지간 간격이 좀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화성 농촌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에 어쩌면 1919년 3·1운동 당시를 느끼며 걷기 좋은 구간이다. 계절마다 다른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물을 대고 모내기하는 봄부터 벼가 자라고 주변의 나무가 무성해지는 여름, 농로 주변에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란 억새풀 사이로 고개 숙인 벼를 추수하는 가을, 왁자지껄했던 들녘이 휴식에 들어간 겨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겨울은 무성했던 버드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고개 숙인 벼들도 사라지고, 논바닥에 짚을 짚게 잘라 깔아 놓은 짚가리가 썩어가기를 기다리는 풍경은 겨울 들녘의 황량함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

연합만세시위를 이끈 독립운동가 최진성

최진성(崔鎭成, 1903~1972)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서 마을 조사를 통해 최근에 밝혀진 독립운동가이다. 한각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 햇불시위를 전개하고, 우정·장안 연합만세시위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도자 색출을 명분 삼아 수색작전을 펼치고 한각리에 들어와 최진성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이 사방으로 번지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최진성 집의 불을 끄는데, 물이 귀했던 시절이었기에 장독대 안에 있던 간장까지 사용하여 불을 꺾었다는 일화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

간장독은 후손이 기증하여 현재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향후 (가칭) 화성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면 전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만세길에는 차희식 집터, 차병혁 생가, 쌍봉산 만세 시위지, 개죽산 햇불 시위터, 수촌교회, 김연방 묘소 등 여러 곳이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농촌이라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인물, 종교, 향촌 사회의 특색이 나타나는 다양한 유허지들을 만날 수 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화성에서는 매년 제암리 학살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3·1운동을 알리고 희생자들에 대해 '위로'와 '기억'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 3·1운동은 불굴과 끈기의 투쟁이었기에 만세길은 역동적이며 힘찬 생명력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선열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끝없는 희망 덕분에 우리는 큰 힘을 얻었고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억의 의미를 넘어 '희망'을 담아내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추운 겨울 지나 어느새 따뜻한 봄이 왔다. 걷기 좋은 날 만세길에서 화성의 기억을 느껴보시길 기대한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자세 전시 문화 데이트



유독 추웠던 올 2월, 꽃샘추위와 함께했던 3월이 지나 불어오는 바람의 온도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포근한 봄날이 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제격! 이번 봄에 가기 좋은 전시회를 소개한다.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사진 차유나(경영지원팀)



©타벨사진관

다양한 전시 감상법

감상의 발견: 느리게, 조용히, 신나게

많은 사람들은 '현대미술'하면 어렵다, 난해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로얄엑스에서 진행되는 현대미술 전시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 전시 <감상의 발견: 느리게, 조용히, 신나게>는 관람객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몸소 느끼며 나만의 발견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화와 조각, 설치, 퍼포먼스, 사진이라는 현대미술의 주요 매체를 통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해 온 엄유정, 이원우, 이지영 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엄유정 작가는 일상에서 놓치기 쉽거나 잊기 쉬운 우리 주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계절에 따른 나무의 모습에 집중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소한 차이들을 작품에 녹여냈다. 이원우 작가는 우리 일상의 요소들을 비틀어 재치 있게 변화시키며, 작가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제들을 회화작품과 이를 활용한 설치작업으로 보여준다. 이지영 작가는 내면과 상상을 담아낸 사진 작품을 통해 상상이 실체가 되고, 다시 누군가의 꿈으로 흠여지는 순환을 담아낸다.

작가들은 기존 현대미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찾았던 어려운 전시 대신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눈을 맞춰보며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찾아내는 전시로 관람객과 만나고자 한다. 전시장을 찾아 속도를 조금 늦추어 작품들을 조용히 들여다보자. 어려웠던 현대미술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선사하고자 한 '감상의 방식'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람 사전 예약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제 5월 29일(일)까지
※월요일 휴관, 어린이날(5월 5일) 정상운영
어디서 로얄엑스 전시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R5동
누구와 현대미술이 아직 낯선 이들과
TIP 옥실 콘셉트의 이색카페 로얄엑스클럽에서
즐기는 브런치

전시로 느껴보는 봄날

가정의 달 기획전시 사알-랑

연제 4월 20일(수)부터 5월 24일(화)까지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8일) 휴관

어디서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아트스퀘어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1층, B1층

누구와 봄이 그리운 이들과

TIP 야외 봄나들이 대신 작품과 함께
꽃놀이 인증샷

가정의 달을 맞아 화성시문화재단 기획전시 <사알-랑>전이 동탄아트스페이스와 동탄아트스퀘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오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봄과 관련된 미디어 및 설치 작품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봄이라는 계절을 다양한 감각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양지윤, 박상화 두 작가가 참여하며 전시는 <오! 마치 봄>과 <봄의 생각> 두 파트로 진행된다.

동탄아트스페이스 <오! 마치 봄>에는 양지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양지윤 작가는 한지의 친환경성, 따뜻한 질감, 촉감, 투과성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극대화하는 한지 오브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분홍빛 노방으로 만든 방 안에 파스텔 톤의 순무와 양귀비 등 색색의 식물 모빌이 하늘에서 쏟아지듯 설치된 'lalala'가 특히 인상적이다. 모빌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봄날의 설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동탄아트스퀘어 <봄의 생각>에서는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박상화 작가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비디오조각, 영상설치, 융복합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해 일상과 자연의 이미지를 혼합, 가상의 공간을 보여주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박상화 작가는 작가 주변의 자연을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구현한 '공중 비디오 정원'을 선보인다. 가상의 정원에 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되어보기도 하고 작품 속 정원에서 봄의 싱그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작은 전시

일제의 선전 수단, 그림엽서

연제 5월 15일(일)까지

어디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누구와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과

TIP 전시를 인증하는 기념 도장 찍기

1919년 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간 3·1운동이 있었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3·1운동이 전개되었던 1900년대 초의 시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2022년 '작은 전시' <일제의 선전 수단, 그림엽서>를 열었다. 1900년 초 제작된 그림엽서는 일제가 한국 통치의 정당화를 선전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당시 한국의 인물, 풍경,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지 않고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별된 장면을 담고 있다. 작은 전시에서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일강제병합기념엽서' '총독부시정기념엽서' '조선풍속엽서' '조선박람회기념엽서'를 소개한다. 더불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탑골공원과 우리 화성의 용주사, 용릉의 옛 모습이 담긴 그림엽서도 볼 수 있다.

전시 말미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도장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다. 전시된 그림엽서에는 '시정기념' '병합기념' 등 기념도장이 찍혀 있다. 관람객은 전시실에 비치된 엽서에 태극기 도장이나 기념관 기념 도장 등을 찍을 수 있다.

취향 저격, 흥미로운 시리즈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

2022 화성시문화재단 기획공연 시리즈



©뮤직 ON STAGE 이진아×빌리어코스티 <이 봄, 우리는>

공연·예술계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화성·반석·누림 아트홀도 2022년 관객들에게 성큼 다가가기 위해 흥미롭고 퀄리티 높은 공연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4개의 공연을 만나보자.

글 원예빈(공연예술팀)

어떤 장르를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ON STAGE' 시리즈

올해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장르의 핫한 아티스트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이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장르의 'ON STAGE' 시리즈 공연을 마련한 것. 'ON STAGE' 시리즈는 동시대에 주목할 만한 작품과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통해 공연-예술계의 경향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꽃샘추위로 약속을 취소했다가도 의외로 따뜻한 날씨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3월엔 'ON STAGE' 시리즈가 첫선을 보였다. 첫 번째 공연은 대학로 연극계의 화제작, 연극 <엘리펀트 송>으로 3월 12일 누림아트홀에서 선보였다. 강승호, 이석준, 이현진 배우가 열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3월 27일엔 이진아×빌리어코스티의 <이 봄, 우리는>이 1년의 공백을 깨고 재개관하는 화성아트홀에서 선보였다. 빌리어코스티의 잔잔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이진아의 통통 튀는 곡 구성으로 높은 예매율을 기록,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어 올해 'ON STAGE' 시리즈에서는 스텔라장×조지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국립현대무용단의 <구두점의 나라에서>, 안은미컴퍼니 등 국내·외 공연 트렌드를 이끄는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프리미엄 현대음악 마스터피스 2022 현대음악 시리즈



©국립합창단

'마스터피스 2022 현대음악 시리즈'는 위대한 작곡가들의 명곡을 국내 최정상급 연주로 만날 수 있는 고품격 현대음악 시리즈다. 첫 공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합창단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 합창단인 국립합창단. 이색적인 화음과 현대적인 감각의 합창곡들을 들고 4월 15일 반석아트홀을 찾았다. 가상합창단(Virtual Choir)을 창단한 세계적인 작곡가 에릭 휘태커의 작품부터 동유럽과 남미의 현대 합창곡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선보였고, 윤의중 단장 겸 예술감독의 세밀하고 정확한 지휘로 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 '마스터피스 2022 현대음악 시리즈'에서는 TIMF양상블의 <현대음악 프롬나드>에 이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 시리즈 <카르멘 판타지>까지 현대음악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부암뮤직소사이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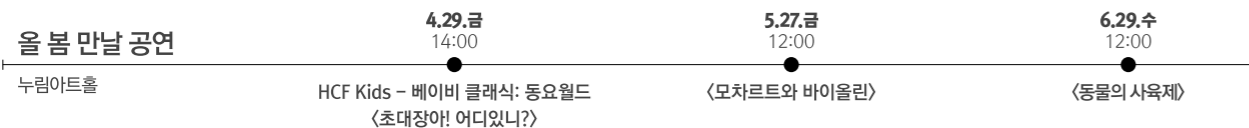
멋진 어른으로의 발돋움 HCF Kids 시리즈

‘HCF Kids’ 시리즈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연이 선사하는 다양한 메시지와 감동의 무대를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된 화성시문화재단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공연 시리즈다. 상반기(1~6월)에는 청소년과 영유아, 하반기(7~12월)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적 감각과 감성 발달에 특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시리즈의 첫 무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CF Kids- 청소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무대’ <그때도 오늘>을 지난 4월 10일 반석아트홀에서 선보였다. 이시연, 박은석 배우가 출연한 2인극으로 한국 근현대사 10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청소년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에 두 배우의 연기력이 더해져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4월 29일엔 누림아트홀에서 ‘HCF Kids - 베이비 클래식: 동요월드’ <초대장아! 어디 있니?>가 첫선을 보인다. 영유아 대상의 ‘베이비 클래식’은 낮 시간에 진행되는 공연으로 기존의 관람방식에서 벗어나 무대 위 유아 매트로 조성된 객석에서 좌식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말 오후 2시, 아이에겐 감성 발달을 부모님에겐 평온한 낮 시간의 힐링을 선사할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올 봄 만날 공연



©한국블루스소사이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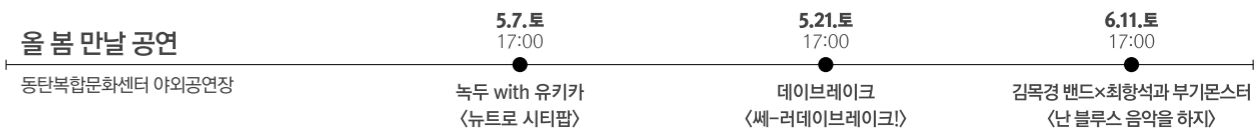


©다진커피

비주류의 주류, 실력파 인디 뮤지션의 잔디밭 무료 공연 뮤직스테이 시리즈

‘뮤직스테이’ 시리즈의 2022년 무대는 실력파 인디 뮤지션들의 라이브 콘서트로 꾸며진다. 시티팝, 블루스, 포크 등 인디씬 중에서 비주류의 주류라 불리는 색깔있는 뮤지션들의 무대를 전석 무료로 만날 수 있다. 떠오르는 시티팝 신예 유키카와 녹두밴드의 <뉴트로 시티팝>이 그 시작. 청량한 음색으로 이미 인디장르에서는 많은 팬들을 보유한 데이브레이크를 비롯해 한국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밴드, 최항석과 부기몬스터도 야외공연장을 찾는다. 대중적인 장르의 음악에 식상함을 느낀다면 나만 알고 싶은 가수, 나만 듣고 싶은 노래들로 꽉꽉 채워진 ‘뮤직스테이’ 시리즈로 도심 속 숲속 공간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즐거운 주말을 만끽하자.

올 봄 만날 공연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아세요?

멸종 위기 동물을 그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상괭이가 떠올랐다. 작은 체구로 서해와 남해, 우리 한반도 연안에 많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다. 입꼬리가 올라가 '웃는 돌고래'란 귀여운 별명을 가진 상괭이. <태종실록>과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 조선의 기록에도 한강에서 발견된 상괭이에 대한 글이 있다. 서해 어딘가에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 한강까지 왔을 것이다.

글·그림 이은미(2021 화성시문화재단 서포터즈)

몇년 사이 우리의 강과 바다에서도 종종 상괭이가 발견된다. 하지만 집단 폐사된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상괭이 폐사의 주원인은 '안강망'이라는 조업장치라고 한다. 상괭이가 그물에 걸릴 경우, 물 위로 올라가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하게 된다. 강을 막는 '보'도 상괭이를 죽음으로 내몬다. 밀물 때 강으로 왔다 썰물에 갇히면 먹이 부족이나 수온 저하 등의 이유로 죽음을 맞는다. 안강망 조업의 경우 현재 그물망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어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안강망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바다에서 상괭이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고래의 멸종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사랑받는 바다의 포유류, 우리는 고래가 처한 아픈 현실을 외면한 채 수족관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래가 살 편안한 바다를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의 지구를 나눠 쓰는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화성의 바다, 그리고 내륙의 강에서 상괭이를 만나는 상상을 해본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 풍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미래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아보았다.



상괭이 팝업 카드 만드는 법



동영상 보기

재료 가위, 칼,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 등



검정색 실선을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 자른다.



모든 점선을 접어준다.



접착면(회색 빗금과 숫자가 표시된 부분)을 같은 숫자끼리 풀이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서로 붙인다.



1-5가 표시된 작은 종이(상괭이의 지느러미 부분)를 카드 뒷면의 1-5 접착면에 붙인다.



화살표가 그려진 손잡이 부분을 바닥으로 해서 끼워주고, 지느러미도 끼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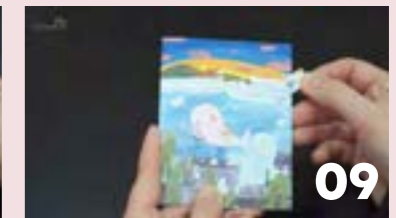
1-6 접착면을 서로 붙여준다.



카드 테두리를 같은 숫자끼리 서로 붙여준다.



1-7을 서로 붙인다.



화살표가 그려진 손잡이를 앞뒤로 움직여 상괭이의 지느러미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함
께
하
다
께

BYEONGJEOM LIBRARY

The 하다

HELLO

우리가 몰랐던 무대 뒤 숨은 조력자
하우스 부매니저 이곡자-헤드어써 정은서

LIST

병점도서관 북큐레이션
문학상 수상 도서

PEOPLE

취향 저격, 흥미로운 시리즈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

CULTURE & ISSUE

화성을 만드는 방법
우리나라 토종 고래, 상괭이를 아세요?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PLACE

배포처

우리가 몰랐던 무대 뒤 숨은 조력자

하우스 부매니저 이곡지
헤드어써 정은서

하나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할까? 무대를 누비는 배우들 외에도 기획과 연출, 음향과 조명, 의상과 소품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또 하나, 관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곳곳을 살피는 이들, 공연장 안내원도 빼놓을 수 없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이곡지 하우스 부매니저와 정은서 헤드어써를 만났다.

글 최현주 사진 남윤중, 김성현

먼저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곡지 부매니저(이하 이)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지원팀의 이곡지 하우스(공연장) 부매니저입니다. 반석아트홀과 누리아트홀, 화성아트홀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2018년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4년이 되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장의 안내원(어써, Usher)은 교육생에서 일반 안내원을 거쳐 헤드어써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부매니저를 거쳐 매니저가 되는 체계입니다.

정은서 헤드어써(이하 정) 저는 하우스 헤드어써 정은서입니다. 2020년부터 반석아트홀과 누리아트홀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매니저와 헤드어써는 공연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배우나 기획자 입장에선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관객들 입장에서 공연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연 전반에 걸쳐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고 할 수 있어요. 공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공연 한 달 전 쯤 스태프 미팅을 합니다. 무대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등에게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객의 예상 연령층과 인터미션 등을 고려한 현장 진행에 대해 논의해요. 공연 당일, 매니저나 부매니저는 기획자 측과 소통하는 무전기 한 대, 안내원과 소통하는 무전기 한 대를 들고 다니며 공연이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정 헤드어써가 하는 일은 일반 안내원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공연장 게이트에선 티켓을 확인해드리고, 물품 보관소에선 관객분들의 꽃다발이나 음식물 등을 보관해드리죠. 공연장 내에선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헤드어써는 신입 교육생들에게 매뉴얼 교육을 하고, 공연 후 백스테이지 정리 등의 일이 더해집니다.



부매니저
이곡지



헤드어써
정은서

현재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평소에 공연 보는 걸 좋아해서 하우스 안내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실제로 안내원을 1년 정도 해보니 관객으로 봤을 때와는 또다른 공연장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음악과 조명, 무대 설치 등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연 당일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재미와 감동으로 다가온 경험이 참 많았어요. 부매니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매니저에 도전했고 지금까지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며 잘 하고 있습니다.

정 저도 공연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마침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안내원을 뽑는다는 공지를 보고 지원했어요. 공연장에서 티켓을 끊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하하) 헤드어셔가 되고 나선 공연의 백스테이지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공연자분들이 리허설하는 장면이나 카메라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이 서로 조율해가는 모습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하고 멋있어요.

공연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이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동안 큰 사고를 겪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연장이 기본적으로 환하게 밝지 않은데다, 공연이 시작되면 전면 소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녹화를 위해 무대 아래 장비를 세팅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케이블선이 길고 복잡해 관객들이 오가다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공연장 곳곳을 세밀히 관찰하고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재 관련 안전교육과 정전시 안전 교육 등을 분기별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꼭 필요해요.

정 공연 중간에 관객들이 화장실을 오가기도 하는데, 넘어져서 손바닥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고에 대비해 안내원이 무대 앞에 2명, 무대 뒤에 2명 배치되어 있어요. 위 아래 사방에서 무대와 객석을 살피며 관객들의 움직임에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죠. 그러다 밖으로 이동하려는 관객이 있으면 손전등으로 발 밑을 조심히 비춰드려요.



일을 하시며 겪은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지난 해 말에 한 어르신이 무대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상여문화와 두레농악이 어우러진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무대에 오르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다행히 잘 설득해서 큰일 없이 장내를 정리했지만, 당시 매니저를 대행하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라 가슴을 쓸어내렸죠. 나중에 들어보니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겪으셔서 감정이입이 깊이 되셨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안내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공연 중 관객들의 입출입 동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매니저와 헤드어셔로 일 하시면서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바뀌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떠한가요?

이 하우스 부매니저를 하면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연뿐 아니라 전시도 참 놓치기 아까운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죠. 화성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진즉에 알았으면 두 딸과 함께 좋은 공연과 전시를 보러 다녔을 텐데 말이죠. 저처럼 아쉬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도록 화성시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 동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살면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 자주 다녔어요. 그때도 반석아트홀에서 여러 공연을 했을텐데, 도서관 출입구와 아트홀 출입구가 달라서인지 중·고등학교 때도 내내 아트홀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일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죠. 안내원이 된 후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정말 좋은 공연과 전시를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 간혹 아이를 동반한 관객분 중에 베이비시트를 2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의 키가 작아서 2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정상 1개만 드리게 되어있거든요. 2개 드리는게 어려워서 아니라 베이비시트 2개를 겹쳐서 사용하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못 드린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음료수를 들고 공연장에 입장하거나 공연 중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것도 잠시만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 공연이 끝난 후 관객분들이 “오늘 정말 재밌었어”라며 밝은 표정을 지을 때 정말 뿌듯해요. 이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공연이 끝나면 게이트에서 관객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공연 내내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뭉클하고 감사해요.

병점도서관 북큐레이션 문학상 수상 도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봄, 이 계절 다시 독서를 하겠다고 다짐해본다. 하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책이 한가득!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고민이다. 그럴 땐 도서관 추천 도서가 제격.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매월 특정 주제로 추천 도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병점도서관은 지난 3월, 노벨문학상, 카네기상, 이상문학상 등 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선정했다. 그중 몇 권의 작품을 소개한다.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

《긴긴밤》, 루리, 문학동네, 2021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물론이지.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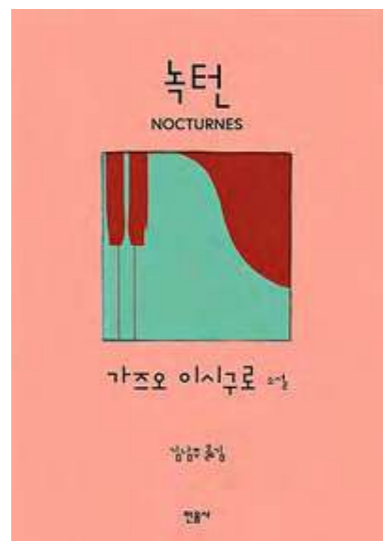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긴긴밤》은 어른이 아이에게 읽어 주려고 펼쳤다가 어른도 울게 되는 책이다. 몇 년 전 뉴스에 소개된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코뿔소 노든은 코끼리고아원에서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에게, 다리가 불편하면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어 걸으면 된다는 코끼리들의 세계에서 코끼리인 줄 알고 자라왔다. 그러나 노든은 진정한 코뿔소가 되기 위해 바깥세상으로 나섰고 아내와 딸이 생겼지만 인간의 총에 맞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만다. 노든은 동물원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웬보와 치쿠는 펭귄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까만 점박이 알을 품기 시작한다. 그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은 노든과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하고, 노든은 어린 펭귄이 살아갈 날들을 위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바다를 찾아가간다.

험난한 길 위에서 코뿔소 노든과 어린 펭귄이 파란 지평선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사랑과 연대를 느끼게 된다. 노든이 어린 펭귄에게 전하는 ‘너는 너 자체로 존재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안도와 위안을 얻고, 수많은 기적이 모여 ‘나’라는 기적을 이룬다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 받게 될 것이다.

‘2017 노벨문학상’ 수상작

《녹턴》, 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2021



“어쩐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적어도 몇 분 동안만은 유예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스템을 밟았다.”(본문 101쪽)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가는 거장 중 하나인 가즈오 이시구로. 그는 그의 일곱 번째 작품인 《녹턴》으로 ‘2017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부제는 ‘음악과 황혼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 야상곡(夜想曲) 혹은 몽환곡이라 불리는 ‘녹턴(Nocturne)’이라는 제목처럼 밤에 어울리는 감성을 담고 있다.

젊은 시절 싱어송라이터를 꿈꾼 이시구로의 작품에는 그의 정체성과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가 묻어난다. 이 작품 역시 베네치아의 곤돌라에서 크루너 가수가 부르는 나직한 세레나데부터 할리우드의 고급 호텔 방에 울려 퍼지는 색소폰 연주, 그리고 베네치아 광장을 메운 〈대부〉 테마 곡의 첼로 선율이 흐른다.

《녹턴》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성공과는 거리가 먼 희망을 좇는 5편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중 〈크루너〉는 기타리스트 안이 과거 전설적인 크루너 가수였던 토니 가드너를 베네치아에서 우연히 만나며 시작된다. 토니는 그날 밤 아내를 위해 곤돌라를 타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싶다며 안에게 기타 연주를 부탁하는데,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돌던 토니는 안에게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아내와 사랑하지만 헤어지기로 했다고 고백한다. 이어서 곤돌라 위에서는 토니의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울려 퍼진다. 〈크루너〉외 〈비가 오나 해가 뜨나〉〈말번힐스〉〈녹턴〉〈첼리스트〉 네 편의 주인공들도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인생의 기로에서 있지만 희망을 찾아간다. 소설 속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거창한 비유나 은유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제16회 세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 세계절, 2018



“수지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너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중략)
선택은 언제나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어. 그것만 잊지 말아 주렴.” (본문 125쪽)

산책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목부터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 작품은 ‘제16회 세계절문학상’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차지한 소설이다.

출생 신고 때 고모가 실수로 ‘빠어날 수(秀) 대신 ‘손 수(手)’를 적는 바람에 ‘손이 안다’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수지. 10대 소녀 수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엄마와 둘만 아는 수화로 대화를 하며 불편함 없이 살아간다. 심지어 그녀는 상상 속에서 그 어떠한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고요한 세계가 불완전한 소음의 세계로 옮겨진다. 수지는 낯선 세상에 적응하며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데, 문득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산책을 듣는 시간’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 수지와 엄마, 할머니, 특수학교에서 만난 한민이와 그의 맹인 안내견 마르첼로까지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를 넘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히 안 들리는 능력’으로 여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들리는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나아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화성인의 대답

몇 년 전 추억을 확인해보라는 클라우드 알림을 받았다. 친척 모두 함께했던 대가족 여행, 뜨거운 여름날 땀뻑한 사람들 사이에서 뛰놀았던 페스티벌, 길을 못 찾고 헤매도 즐거웠던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그리움도 잠시, 당연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 너무 야속했다. 화성인들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일상 회복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남영미 | 주부 푸른 바다에서 자연을 만끽하기

2017년도에 그리 멀지 않은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그때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거실 한켠에 걸어두곤 답답함이 느껴질 때마다 감상하곤 한다. '또 가야지.' 하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은 하지 못했다.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마스크에 거리두기에 흥도 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은 괜히 불편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 더 늦기 전에 다시금 푸른 바다에서 마스크 없이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



이준호 | 회사원 가족과 함께 벚꽃 구경 가기

2019년 코로나19가 세상에 퍼지기 전에는 아내와 나란히 손을 잡고 봄이 오면 진달래가 활짝 핀 산을 찾아 가벼운 산행을 하거나, 벚꽃이 만개한 곳을 찾아 나들이를 하곤 했다. 또 아이들과는 지역행사나 있는 곳을 찾아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족과의 달콤한 추억쌓기를 포기한 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꽃 피는 3월이 왔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바이러스로 변이하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우리들은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채 생활하고 있다. 조금씩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고 오미크론바이러스는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기에 전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지 싶다. 올해 들어서는 공연과 행사를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방송국 방청을 신청해서 몇 차례 방청을 하고 왔다. 본격적으로 봄이 찾아오는 4월과 5월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상황이 나아져서 거리공연도 생겼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벚꽃 구경을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도 학교에서 체험활동도 가고 학교생활에 좀 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최주영 | 학생 영화관 가기

침대 위에서 터치 몇 번으로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나머지 한 손은 엉덩이를 굽든 코를 파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너무나 익숙해진 이런 일상은 혼자인 사람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다. 나의 오래된 취미는 영화 관람이다. 스크린 앞에 앉기 전까지의 과정도 날 즐겁게 했다. 많은 영화 중 하나를 고르고, 티켓을 뽑고, 요깃거리를 사서 자리를 안내받는 동안 나의 존재감을 작게나마 확인받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나의 자리로 지정된 곳에 속하는 그 감각이 좋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 3년째, 우리는 OTT로 시선을 돌렸고, 영화관을 거절했다. 관람의 준비과정은 모두 스스로 하게 되거나 삭제되었다. 내가 즐기던 감각이 사라졌다. 일상이 회복된다면 예전 그 영화관에 가고 싶다. 형형색색의 영화 포스터를 볼 수 있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크고 작은 스크린에서 앞으로 나올 영화의 예고편이 들리는 그런 영화관에 가고 싶다. 예전과 같은 영화관은 앞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부디 간절히 바란다. 일상이 돌아오듯 영화관도 나의 감각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서성윤 | 프리랜서
용건릉 산책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외출이 더 어렵다.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누비고 싶다. 싱그러운 햇살과 바람이 나리는 용·건릉에 다시 가보고 싶다.



곽민영 | 보육교사
서로의 얼굴 보며 인사 나누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인 나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하고, 서로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식사를 할 때 또는 간식시간에만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거나 뛰놀 때 언제든지 서로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9년생 4살이 된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이제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다. 익숙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익숙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보호자의 얼굴도 사진을 통해서만 마주할 수 있는 이 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하는 가장 일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스크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 나누고,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마스크 한 장의 무게만큼 일상의 무게가 가볍고, 마스크 한 장의 두께만큼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마스크 한 장의 안전성만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고비를 이겨낸 우리 모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가길 바란다. 마스크를 벗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가영 | 직장인
나의 새로운 고향 탐방

나의 새로운 고향과 친해지고 싶다! 2020년,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결혼과 함께 고향을 떠나 화성시로 이사를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한 결혼이어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겨울이 다가올 때쯤 화성시로 와 '집콕'만 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해가 바뀌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 왔을 때도 마음 놓고 외출하지 못했다. 다시 만나는 봄에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의 집인 화성시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 많은 공원들과 호수에 가서 봄나들이를 즐기고 주말엔 전시회도 다시 보러 다니고 싶다. 아직 화성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서 전에 살던 고향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용건릉, 궁평항, 제부도 등 유명한 장소도 벌써 가보고 싶은 목록에 체크해 놓았다.

강지혜 | 직장인
우리꽃식물원에서 봄을 만끽하기

평화로운 일상 속 김숙이 코로나19가 파고든 지 벌써 3년 째다. 워드 코로나, 불가피하게 함께 하는 삶이 됐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점차 코로나가 수그러들어 일상회복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독정리 '우리꽃식물원'에 가족들과 다녀오고 싶다. 코로나가 번지기 전엔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꽃식물원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흠뻑 꽃향기에 취해 뛰놀다 오곤 했는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다시금 추억을 그리며 한껏 싱그러운 풀내음과 꽃향기 가득한 호수를 둘러보고 싶다. 재잘재잘 꽃들의 웃음소리 따라 가족들과 소근소근 이야기꽃을 피우며 손 꼭 잡고 걸어 보리라. 흠날리는 빗꽃 속에서 가족사진을 찍으리라. 머지않아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면 가슴에 추억이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꽃식물원에서 새봄을 만끽하고 싶다.

백종숙 | 프리랜서
봄꽃 날리는 야외 음악회

요즘 즐겨 듣고 있는 피아노 연주곡은 히사이시 조(Hisaishi Joe)의 'Summer'다. 코로나19로 무수히 미뤄진 공연들이 너무 아쉽다. 랜선으로 옮겨간 예술은 또 다른 통로이긴 하나 실제 무대를 대체하기엔 갈증이 났다. 연주의 무게가 마음을 두드리고 연주자의 그날 분위기 또는 함께 듣는 관람자들에 의해 즐거움의 농도가 짙어진다. 봄꽃이 날리는 야외에서 공연을 함께 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마음을 그림에 담아 그려봤다.



'PEOPLE'은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글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호 PEOPLE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기념품과 함께 <화분> 지면에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소식



최적의 독서환경으로 변신
병점도서관 재개관

병점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3월 15일 재개관했다. 올해로 개관 16년 차를 맞은 병점도서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자 친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위해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했다. 7개월간의 공사로 다국어정보자료실과 정기간행코너가 신설되었고,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에 개방형 열람 공간이 마련됐다. 안화초등학교, 태안초등학교와 가까워 아동의 이용이 많은 병점도서관은 유아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구와 인테리어로 어린이자료실을 새롭게 리뉴얼하였고, 실 내부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담겨있다. 지난 4월 4일 개관식을 가진 병점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여 샌드아트 공연, 원화 전시, 병점도서관 Before & After 사진 전시 등을 운영한다. 공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병점도서관은 양질의 장서를 비치하고 폭넓은 연령층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탄호수공원에서 모두 같이 즐겨요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오는 7월 자연을 품은 동탄호수공원에서 '화성시 가족사랑축제'가 개최된다. 2019년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축제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다. 2022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가족사랑축제에서는 동탄호수공원 운담원 일대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푸드트럭, 야외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그간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동탄호수공원의 환상적인 루나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해당 공연에는 화성시 관내 학생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일상 속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될 축제의 매력을 오랜 기간 그리워했다면, 이번 7월 열리는 가족사랑축제에서 맘껏 즐기고, 체험하고,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음식도 맛보자! 가족사랑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추후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축제2팀 031-290-4626

2022년도를 함께할 3기 예술단원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어우러짐
플레이엄(PLAYEUM)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오픈키친 특강
봄나물 나들이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목공DIY스튜디오 특강
생활 속 공구 활용법



화성시 M.I.H(Made In Hwaseong) 프로젝트 예술단 3기(이하 M.I.H 예술단)의 활동이 지난 3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M.I.H 예술단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화성 시민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는 예술단체이다. 이번 M.I.H 예술단 3기는 오디션을 통해 65명의 예술단원이 선정되었으며 관현악, 댄스, 국악, 보컬 총 네 팀으로 운영된다. M.I.H 예술단은 정형화된 지자체 예술단의 틀에서 벗어나 '통합 기획공연'과 '공연 선물' 등 특색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 기획공연'은 예술단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장르의 벽을 넘어 협업하는 공연이다. '공연 선물'은 화성시민에게 공연을 선물해드린다는 의미로 기획된 공연으로 시민들이 응모한 사연 중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선물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자.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3기 단원들의 오디션 현장과 뒷이야기, 공연 등 재미있는 이야기는 M.I.H 예술단 인스타그램에서 만날 수 있다.

인스타그램 @mih_artgroup

예술가와 화성시민이 함께 하는 놀이, 플레이엄이 5월에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예술지원센터 신설 후 화성시의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노는 'Play'와 창의적인 예술교육 활동의 집약 공간을 의미하는 'Museum'을 합성하여 <플레이엄(PLAYEUM)>을 기획했다. 지난 2월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3월엔 플레이엄 참여 프로그램을 모집,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최종 1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선발됐다. 선발된 프로그램들은 인문, 미술, 음악 분야의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오는 5월 관객을 찾아간다. 프로그램 참여 안내는 추후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예술교육지원팀 031-290-4691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오픈키친에서 봄 기운 품은 제철나물 가득한 <봄나물 나들이> 4월 특강 프로그램이 열린다. 다양한 종류의 봄나물 레시피를 공개하는 이번 특강은 나문재(함초)나물과 특별 양념소스로 만드는 화성시 특화 레시피가 있어 더욱 특별하다. 해안가나 갯벌에서 자라고 어린순만 채취해서 먹는 나문재나물은 입안에서 상큼한 바다 향기가 나고 씹히는 맛이 독특하며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올봄 기력이 떨어진다면 오픈키친 특강에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영양소도 가득한 봄나물 음식 레시피를 배워보자. 봄철 입맛을 돋워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프로그램 상세내용 및 접수는 추후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생활문화팀 031-8059-1645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목공DIY스튜디오에서는 월 1회(4월 6일, 5월 4일, 6월 8일 예정) <생활 속 공구 활용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갖고 있으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공구의 정확한 사용법과 안전 가이드를 교육한다. 한 수업 당 참여 인원은 10명이며,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목공DIY스튜디오에서는 봄 프로그램으로 5월에 <나무로 인생을 즐기다> 특강을 진행한다. 우드펜, 수납장, 등 특강을 3회에 걸쳐 진행, 목공기술을 쉽게 배워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생활문화센터 목공방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생활문화팀 031-8059-1696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봉담도서관 도서관 주간



봉담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공연여행



이태림/나눔

내 손 안의 문화소식
화성시문화재단 이메일 뉴스레터



우리 동네 공방을 영상으로 만난다
김길주가 간다 시즌 2



한국도서관협회는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도서관 주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봉담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원화 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도서관 주간 전시에서는 도서 《조선 화원의 하루(궁중 화가와 우리 그림 이야기)》에 실린 원화를 통해 조선시대 생활상을 생생하게 담아낸 그림을 궁중 화원의 삶과 함께 만날 수 있다. 4월 16일은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저자 이학범 작가 초청 강연과 제로웨이스트 일일특강, 4월 23일은 인형극 <토끼의 재판>과 북트리 만들기 일일 특강을 진행한다. 접수 일정 및 방법은 화성시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고려하여 원화 전시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봉담도서관 031-227-7281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봉담도서관의 <공연여행>이 올해 다시 시작된다. 공연여행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5월 21일, 올해 첫 공연에는 팝페라 혼성 그룹 '솔레올레'가 출연한다. 솔레올레는 JTBC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최용호 테너가 속한 그룹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여행의 접수는 5월 초 공지하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여부를 조정한다. 찾아가는 공연장을 포함해 12월까지 총 7회 예정된 연간 공연은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뮤지컬, 마술, 클래식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봉담도서관 031-227-7281

화성시 문화·예술 소식을 모아서 받아보고 싶다면 화성시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주목하자. 화성시문화재단 뉴스레터는 화성시 내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의 알찬 소식을 모아서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월 1회(매월 15일 경)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한다. 뉴스레터는 다채로운 문화소식과 함께 매월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 칼럼니스트 1명을 선정하여 문화·예술, 교양·상식 및 트렌드를 다루는 칼럼을 제공한다. 1월에는 《다시 쓰는 반려일기》 등을 집필한 문학라이프스타일 분야 작가 도란의 '미술을 알고 싶은 마음', 2월에는 여행 에세이 《당신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을 쓴 작가 이지수의 'MZ세대의 공연 소비코드: 취향 + 경험', 3월에는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음악 웹진 IZM의 편집장 김도현의 '알고 들으면 더 좋은, 모르고 들어도 좋은 음악'을 소개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은 신청 사이트(<http://naver.me/GeWFwNgn>)에서 하면 된다.

문의 경영지원팀 031-8015-8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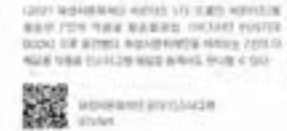
화성시생활문화센터가 수공예 대표마켓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에서 준비한 생활문화(취미) 영상을 선물한다. 바로 화성시문화재단 김길주 팀장이 '생활문화 늦깎이'라는 콘셉트로 지역의 예술공방을 찾아가 공방 운영자와 소통하는 생활문화 체험형 영상 콘텐츠 <생활문화 늦깎이 김길주가 간다>이다. 지난해 시작한 시즌1에서는 미싱, 손바느질, 뜨개, 도예, 목공예, 유리공예, 플라워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방을 방문하였고, 이번 시즌2에서는 동탄 영천동에 위치한 마크라메 공방과 라무통위방을 방문,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했다. 우리 동네 공방을 만나보고 다양한 스타일의 공예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이번 영상을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자.

문의 생활문화팀 031-8059-1766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8년만에 돌아온 이사왔습니다. 이곳에 살다 보니 8년만에 화성시 안에서 문화적으로, 행정적으로 무척이나 의욕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화시설 또는 문화행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지역별 문화행사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화성시는 도시 형태가 좀 조악 허름 동탄권, 향남권, 남양권으로 나뉘고 각 권역 안에서만 교류를 하던데 제가 속한 남양권의 문화행사를 어떤 모양서 소개하는 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민이나 행사 취미보다는 좋은 공영이나 행사를 미리 소개해주는 기사도 많아서 제가 철저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할 겁니다.



- 1. 지역별 문화행사 안내
- 2. 지역별 문화행사 소개
- 3. 지역별 문화행사 소개
- 4. 지역별 문화행사 소개
- 5. 지역별 문화행사 소개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독자 엽서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화성시 서남부권에서도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교양지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8015-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 제부도 아트파크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곡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로알앤컴퍼니 아울렛
- 모두누리센터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뜰
- 카페 그루비
- 카페 쉬시오
-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 동탄제로웨스트샵 시바른상점
- 서울건치과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개인 구독자를 위한 배송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2021년, 화성시문화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매월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칼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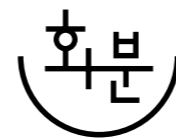
클릭하면 해당 SNS로 이동



화성시문화재단의 새로운 소식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소식 안내

해당 뉴스레터의 수신거부를 원하시면 [답장]을 통해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VOL.54 | ART + BLOSSOM
2022 SPRING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종대
편집국장	허명범
편집팀장	이혜진
기획·편집	차영은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